

보도자료

www.kbiz.or.kr
KBIZ 중소기업중앙회
 부산울산지역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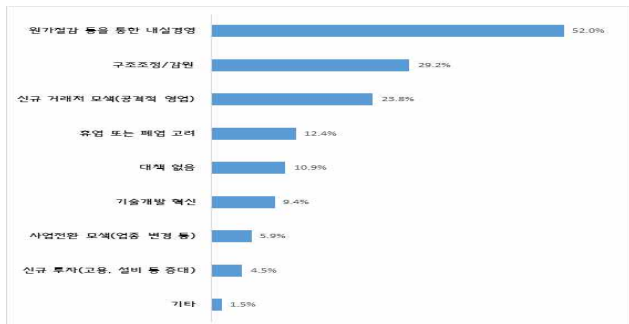
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 바랍니다.	배포일시	2020. 12. 10(목)
담당	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기훈(☎051-861-9370), 과장 한정엽(9373)		

내년 부산 中企 2곳 중 1곳 이상 '원가절감 통한 내실경영'으로 위기 대응 - 내년 도입되는 주52시간제 준비 미흡도 47.5% 달해-

□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(본부장 김기훈)가 부산 중소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'부산 중소기업 경영상황 인식 조사' 결과(20.12.2 ~ 12.4)에 따르면, 부산 중소기업 응답자의 82.2%가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인 현재를 경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△위기 상황은 57.9%로 나타났으며 △외환·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심각한 위기상황도 24.3%였으며, △우려할 수준 아님은 14.4%, △경기 회복 국면은 3.5%에 그쳤다.
-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△원가절감 등을 통한 내실경영(52.0%), △구조조정/감원(29.2%), △신규 거래처 모색(23.8%) 순이었으며, △휴업 또는 폐업 고려(12.4%)까지 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이 엄중한 것으로 드러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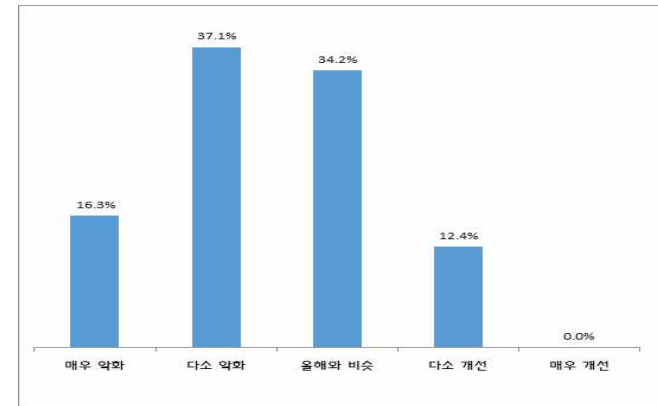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〉 현재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안(복수응답)



- 위기 감내 기간은 △1년 내(28.9%)가 가장 많았고, △1년 이상(24.7%), △모르겠음(21.7%), △6개월 내(12.7%) 순이었다.

□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 경제상황 전망으로는 △다소 악화(37.1%), △올해와 비슷(34.2%), △매우 악화(16.3%) 순이었고, △다소 개선(12.4%)은 상대적으로 적어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현상유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.

〈그림 2〉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(2021년) 경제상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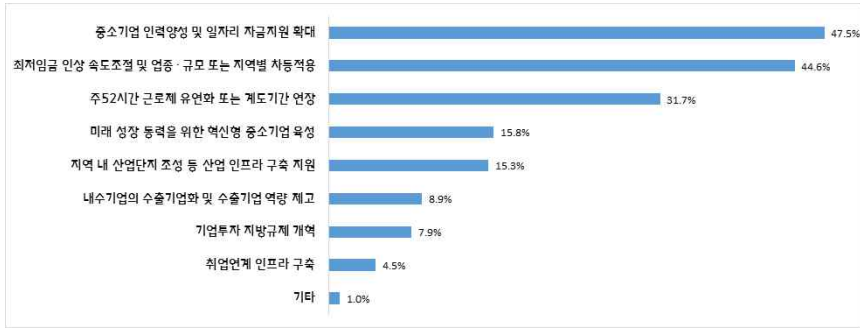


- 악화 예상 이유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심리 위축, 매출감소 등 내수침체(80.6%)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△급격한 고용정책 변화(최저임금 인상, 근로시간 단축 등)(45.4%), △정부의 노동 친화정책 및 경제대응방안 부족(33.3%), △美·中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(13.9%) 등 순이었다.

□ 내년 부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△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자금 지원 확대(47.5%), △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및 업종·규모 또는 지역별 차등적용(44.6%)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, △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또는 제도기간 연장(31.7%), △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(15.3%)이 뒤를 이었다.

-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 정책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은 경우가 많았다.

〈그림 3〉 2021년 부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바라는 사항(복수응답)



□ 한편,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응답자의 47.5%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△준비할 여건이 안 됨이 27.2%, △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 불가가 20.3%로 나타났으며, △준비완료는 34.2%, △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가능은 18.3%였다. 근로자수가 적은 순으로 준비가 미흡한 비율이 많았다.

○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한 이유는, △업종 특성상/납기 일정상 불가(47.9%)가 가장 많았고, △추가채용 비용 부담(39.6%), △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(34.4%) 순으로 기업 대내외 요인이 혼재되어 있었다.

□ 중소기업중앙회 김기훈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“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‘코로나 확산’과 ‘주52시간’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”며 “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영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,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대폭 완화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이 절실하다”고 밝혔다.

[붙임] 「부산 중소기업 경영상황 인식 조사」 보고서 1부.

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47519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(연산4동) Tel. 051-861-9373 Fax. 051-637-2066

“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와 무관함”